

# 보도자료

PRESS RELEASE

터너에서 인상주의까지

## 영국근대 회화전

From Turner  
to Impressionists  
The collection of  
British landscape  
painting

- \* 전시기간 : 2010년 6월 25일(금)  
~ 2010년 9월 26일(일)
- \* 전시장소 :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3층
- \* 프레스오픈 : 2010년 6월 24일 목요일  
오전 11시
- \* 보다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시면,  
지엔씨미디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김현지 팀장 / 02 325 1085)



# 영국근대 회화전

터너에서 인상주의까지

From Turner to Impressionists - The collection of British landscape painting

## 목 차 TABLE OF CONTENTS

### 1. 전시 개요

EXHIBITION

### 2. 전시 의의

IMPORTANCE

### 3. 전시 주제

MAIN THEME

### 4. 전시 구성

COMPOSITION

### 5. 전시 소주제

DETAIL THEME

### 6. 대표 작품

TYPICAL ARTWORKS

### 7. 전시 관람 안내

VISIT INFORMATION

(교육프로그램)

# 영국근대 회화전

터너에서 인상주의까지

From Turner to Impressionists - The collection of British landscape painting

## 전 시 개 요 EXHIBITION

- \* 전 시 명 : 영국 근대 회화전 - 터너에서 인상주의까지  
*From TURNER to IMPRESSIONISTS*  
*- The Collection of British Landscape Paintings*
- \* 기 간 : 2010년 6월 25일(금) ~ 2010년 9월 26일(일)
- \* 장 소 :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3층 전시실
- \* 전시작품 :
  - (1) 영국 최고의 국민화가 조제프 말로드 윌리엄 터너와 존 컨스터블 등을 비롯한 영국 낭만주의 화가들의 작품, 그리고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프랑스 인상주의 화가 폴 고갱, 피에르 보나르, 카미유 피사로 등의 작품을 포함 총 116점의 회화 작품 전시
  - (2) 영국 맨체스터 시립 미술관, 베리 미술관, 맨체스터 대학 테블리 하우스 컬렉션, 블랙번 미술관, 라인 미술관, 올덤 미술관, 터치스톤스 로치데일 미술관 등 8개 영국 주요 미술관이 참여
- \* 홈페이지 : <http://www.british2010.kr>
- \* 주 최 : SBS, 예술의전당
- \* 주 관 : (주)지엔씨미디어
- \* 후 원 : 주한영국대사관, 주한영국문화원, 문화체육관광부
- \* 협 찬 : 하나SK카드, 롯데백화점, 아이피데코, 한솔교육, 테이트, 노보텔엠베서더 강남
- \* 협 력 : 크레디아, 아티스, NCA
- \* 미디어후원 : 네이버
- \* 인터넷예매 : 인터파크

## 전 시 의 의 IMPORTANCE

### 1. 국내 최초로 소개되는 18~19세기 영국 낭만주의 회화의 향연

- \* '순수한 있는 그대로의 자연으로의 회귀'를 주창했던 낭만주의 화가들의 사상을 통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자연의 진리'에 대한 소중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 2. 프랑스 인상주의 탄생의 모태가 된 영국 근대 회화들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전시

- \* 야외에서 직접 빛과 자연을 관찰하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인상주의'는 이미 영국에서 시도되었던 미술 장르였습니다. 이러한 형식의 영국 풍경화는 프랑스 인상주의 탄생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폴 고갱, 클로드 모네, 카미유 피사로, 피에르 보나르 등의 유명 인상주의 화가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 3. 윌리엄 터너의 재발견 -세계 최고 권위의 현대미술상인 '터너상'(Turner Prize) 탄생의 모티프가 된 화가

- \* 터너상 : 현대미술의 지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지닌 지표 중 하나로 여겨질 만큼, 전문가적인 권위와 대중적인 영향 면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현대미술 분야 최고의 상입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화가 '터너'의 이름이 붙여진 만큼, 미술계에서 윌리엄 터너의 지대한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 4. 미술 교과와 직접 연관되는 키워드들을 눈으로 감상함으로써 교육적인 효과 기대

- \* 18~19세기에 영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산업혁명'으로 인한 급속한 산업화 속에서, 산업 발전의 이면에 존재했던 폐해에 대하여 고민했던 철학자 및 예술가들 사이에서 일어난 '낭만주의 사상'의 본질을 깨닫고, 그것이 어떻게 미술 분야에 접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자연주의, 낭만주의, 인상주의, 라파엘전파 등 미술뿐만 아니라 사상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사조들을 한눈에 파악하며, 또한 대기 원근법, 수채화법, 선원근법 등의 미술 교과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이론들을 작품 감상을 통해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 영국근대 회화전

터너에서 인상주의까지

From Turner to Impressionists - The collection of British landscape painting

## 전시 주제 MAIN THEME

이번 전시는 18-19세기 영국 근대 회화의 진면목을 발견할 수 있는 최초의 자리로서, 영국 최고의 화가로 손꼽히는 **윌리엄 터너** 및 **존 컨스터블**을 비롯한 80여 명의 최고의 작품 116점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 시기의 영국 풍경 회화들은 미술사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모네, 르누아르** 등으로 대표되는 '인상주의' 화풍이 태동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인상주의 화가들에게 예술적인 영감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윌리엄 터너 (1775-1851)

이번 전시를 통해, 영국의 '국민 화가'이자 낭만주의의 대표적 화가로 평가 받는 '터너'를 재발견하고, 영국 근대 회화의 전성기를 이끈 대표적 화가들의 작품과 그들의 영향을 받아 화풍을 형성했던 **폴 고갱, 피에르 보나르, 카미유 피사로** 등 프랑스 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까지 함께 감상함으로써, 서양 회화의 역사적 흐름을 이해함과 동시에, 그들이 화폭에 담고자 했던 '있는 그대로의 순수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산업혁명'의 시발지인 영국에서 18-19세기에 일어난 급격한 산업화는 곧이어, 자연 순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연 회귀 운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산업 발전이 가져온 편리함의 이면에 파괴되어 가는 자연의 모습을 목격하며 일종의 향수를 느끼게 된 사람들은 다시 자연의 순수함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화가들은 꾸밈이 없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의 모습'을 화폭에 담고자 부단히 시도했으며, 이 작품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자연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을 제시해 줍니다. 그들이 당시에 바라본 자연 풍경에 대한 따뜻한 시선은 현재 우리들이 추구하고 있는 자연 친화적인 삶과도 연관 지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전시에서 볼 수 있는 작품들은 시대를 앞서간 화가들의 눈으로 바라본 자연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자연의 순간적인 아름다움을 담은 작품들을 통해, 우리가 잊고 있었던 순수함과 낭만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자연의 빛과 색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영국근대 회화전

터너에서 인상주의까지

From Turner to Impressionists - The collection of British landscape painting

## 전 시 구 성 COMPOSITION

이번 전시는 «터너에서 인상주의까지»라는 큰 주제 아래에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의 소주제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섯 개의 소주제들은 *영국의 근대 화가들이 영감을 받았던 자연 장소를 대표함과 동시에, 각각의 장소가 갖고 있는 고유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번 전시를 위하여 특별히 참여한 영국의 유명 미술관들의 대표 소장품을 통해, 영국, 나아가 유럽의 풍경 및 풍속, 그리고 그 속에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 숨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마음껏 음미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1. 자연의 진실 - 순수 풍경과 자연
2. 하늘과 물의 풍경
3. 목가적인 풍경
4. 삶이 어린 풍경
5. 새로운 풍경의 등장 - 여행하는 사람들 / 건축물이 있는 풍경
6. 프랑스 인상주의



## 전시 소주제(1)

## DETAIL THEME

### 1. 자연의 진실 - 순수 풍경과 자연

전통적으로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체계적인 미술 교육의 시스템이 정립되지 않았던 영국에서는, 화가들이 작품 속에 종교적이거나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아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영국에서는 종교화나 역사화보다는 편하게 접근할 수 있었던 초상화나 풍경화가 많은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18~19세기에 이르러, '산업 혁명'에 의하여 급속도로 산업화를 겪게 되면서 점점 복잡해지는 도시 환경 및 산업화의 이면에서 부각되는 폐해에 지친 사람들은 '순수한 자연의 풍경'에 대한 향수를 갖게 되었으며, 인간의 진실성 및 자연의 순수성에 몰두하는 '낭만주의 사상'이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여 이 시기의 화가들은 눈에 보이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의 모습'을 어떠한 변형이나 꾸밈 없이 그 자체로 화폭에 담는 데 열중했습니다. 즉, 영국 화가들에게 있어서 풍경화는 곧 정신적인 안식처이자, 명상의 영역이었으며 나아가 새로운 회화적 시도를 가능하게 한 창조적인 도구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 2. 하늘과 물의 풍경 - 바다, 강, 호수의 전경

영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바다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넓게 펼쳐진 바다, 해변으로 밀려들어와 부서지는 파도는 오랫동안 음악이나 문학 등의 소재가 되었으며, 회화에서도 자주 다루어졌습니다. 바다에 대한 예술가들의 관점은 여러 가지로 표현되었는데, 신비스럽고 상냥하며 풍부한 자원을 제공하는 자연의 모습으로 비춰지거나, 또는 무한의 에너지를 지닌 '파괴'와 '위협'의 이미지를 지닌 존재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낭만주의 시대에 이르러, 이러한 바다의 매혹적인 모습은 화가들을 통해 '풍경화'라는 장르로 많이 그려지게 되었습니다.

## 전시 주제(2) DETAIL THEME

### 3. 목가적인 풍경 -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 & 동물들이 있는 풍경

일부 풍경화가들은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순수한 풍경의 모습만을 고집스럽게 작품 속에 담았지만, 대다수의 화가들은 풍경과 더불어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 즉 일상생활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관찰하여 표현했습니다. 18세기 후반, 영국에서부터 비롯된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인하여 급속한 산업화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의 수혜는 원자재가 생산되는 지역이나 공장이 들어선 지역 등 특정한 곳에만 국한되어 나타났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골 사람들은 산업화의 영향을 받지 못한 채, 이전과 별다른 변화 없이 생활했습니다. 화가들이 작품 속에 담았던 보통 사람들의 일상적 노동의 모습이나 그들이 생계의 목적으로 키우는 가축들의 모습은 목가적인 풍경처럼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산업화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이전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야 했던 하층민들의 고된 삶의 아련한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 4. 삶이 어린 풍경

19세기 영국 회화에 있어서 두드러지는 특징들 중 하나는, 17세기 네덜란드 및 플랑드르의 장르화 전통에서 영향을 받아 일상 생활의 모습이 담긴 풍경 속에 남자와 여자, 아이들 등의 인물이 표현되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당시 화가들은 더 이상 작품 속에 종교적인 메시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교훈적인 내용이나 훈육적 의미를 신경 쓰지 않고 편안하게 풍경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려진 작품들은 무척이나 신선했고, 또 민주적이었습니다. 어떠한 기록에도 남지 않을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 모습은 화가들의 작품 속에서 오히려 진솔하게 그려지며 묘한 매력을 발산하는, 미술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모티프로 자리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 전시소주제(3) DETAIL THEME

### 5. 새로운 풍경의 등장 - 여행자 & 건축물이 있는 풍경

1815년, 20여 년간 지속되었던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자, 영국 화가들은 영국 해협을 건너 물밀듯이 유럽 대륙을 여행했으며, 그곳에서 오랫동안 접할 수 없었던 회화적 모티프들로부터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유럽을 여행하며 새로운 소재에 대한 갈증을 해소했던 화가들은 1815년부터 유럽 각지의 풍경을 담은 작품을 그렸으며, 사람들은 런던에서 정기적으로 열렸던 전시회에 출품된 이 작품들을 통하여 유럽의 풍경을 감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행의 붐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해주었던 것은 산업혁명으로 인한 증기기관의 발달과 더불어 더욱 편리해진 교통 수단 덕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19세기에 영국은 활발한 산업화의 중심에 있었으며, 산업화의 결과는 풍경에도 상당한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화가들은 영국 내의 풍경, 즉 오래된 건축물의 폐허나 도시의 모습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산업화에 의해 변화하는 도시 및 시골의 풍경, 혹은 산업화의 영향이 닿지 않은 과거의 건축물들이 있는 풍경을 작품 속에 즐겨 담게 되었습니다.

### 6. 프랑스 인상주의 - 영국과 프랑스 간의 활발한 미적 교류

1850년대에 이르러 파리는 로마를 대신하여 유럽 미술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으며, 많은 화가 지망생들은 파리에서 미술을 공부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실제로 국적을 불문한 수많은 학생들이 파리로 유학을 갔으며, 매년 여름이면 프랑스의 전원 마을에 모여 뜻을 같이 하는 모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뛰어난 스승으로부터 많은 회화적인 기법을 전수 받았으며, 새로이 유행하게 된 회화 양식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서로 영감을 주고 받거나 의기를 북돋았습니다. 이처럼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하여 급속하게 발전한 인상주의 화풍과 그에 따른 새로운 미학적 원리들은 점진적으로 영국으로까지 확대되기에 이르렀으며, 프랑스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영국의 화가들은 이러한 새로운 회화적 시도의 결과물들을 영국 대중들에게 전파했습니다. 1880년대를 전후로 하여 프랑스와 영국 사이의 미학적 교류는 활발하게 지속되었으며, 그 결과 많은 프랑스 화가들은 영국의 전통적인 풍경 양식 위에 프랑스 인상주의 화풍을 접목하여 다양한 시골 풍경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 영국근대 회화전

터너에서 인상주의까지

From Turner to Impressionists - The collection of British landscape painting

## 대표 작품 TYPICAL ARTWOR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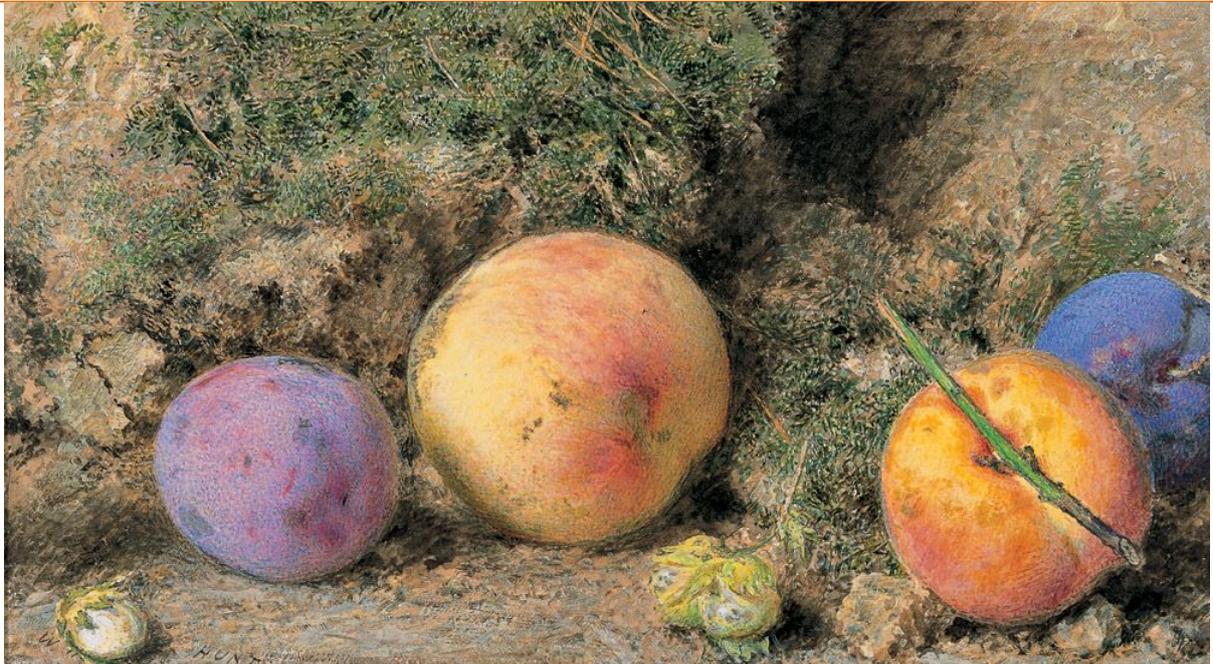


존 컨스터블, 햄스테드의 브랜치 힐 연못, 1820년대, 베리 미술관 ©Bury Art Gallery

### ▶ 제1장. 자연의 진실 - 순수 풍경과 자연

존 컨스터블(John Constable)은 햄스테드에서 관찰할 수 있었던 광활한 지형의 풍경, 다시 말하면 저 멀리 지평선이 보이고 드넓은 하늘이 펼쳐져 있는 풍경을 통해, 그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던 야콥 반 루이스달 및 얀 보이낭스 등 17세기 네덜란드 회화의 거장들이 그린 풍경화 형식을 마음껏 시도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작품 속에 과거 전통적인 풍경화의 형식이 그대로 답습되어 모호하게 반영되지는 않았다. 컨스터블은 전통적 풍경화의 전통에 스스로 구축한 개념과 직접 풍경을 관찰한 결과를 더하여 새로운 풍경화를 시도하고자 노력했다. 프랑스 낭만주의의 대표적 화가인 외젠 들라크루아는 컨스터블을 가리켜 '프랑스 풍경 회화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했으며, 이후 컨스터블의 작품들은 프랑스의 미술 중개상들에게 불티나게 팔리게 되었다. 그가 시도했던 풍경 회화에 대한 접근 방법은 일종의 '최초의 인상주의적' 화풍이라고 평가되기도 한다.

## 대표 작품 TYPICAL ARTWORKS



윌리엄 헨리 헌트, 자두, 복숭아 그리고 헤이즐넛, 베리 미술관 ©Bury Art Gallery

### ▶ 제1장. 자연의 진실 - 순수 풍경과 자연

영국의 유명 미술 비평가인 존 러스킨은 이 작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저술했다.

“윌리엄 헌트(William Henry Hunt)가 그린 과일 작품들의 화려함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순수한 색채들의 병렬 효과를 통해 나타난다. 헌트가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 목적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의 화법은 존경 받을 가치가 충분한 모범적인 것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러스킨은 실제로 자신이 ‘그라데이션’이라고 명명했던 점층적인 색 표현 기술에 있어서, 헌트가 그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여겼다. 실제로 그는 색이나 톤의 강도를 작품 속에서 끊임 없이 다양하게 표현하는 데 일가견이 있었다.

러스킨이 1857년에 발간한 젊은 화가 지망생들을 위한 지침서인 『드로잉의 요소』에는 다음과 같은 필수 지침이 들어있었다.

“윌리엄 헌트의 작품들을 연구하라.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사물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순수한 색들을 복합적인 터치로 혼합하여 색조를 구사하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마라. 이러한 연습을 통해 터득한 방법을 풍부하고 감미로운 효과를 주고자 하는 여러분의 스케치에 적용하라.”

# 영국근대 회화전

터너에서 인상주의까지

From Turner to Impressionists - The collection of British landscape painting

## 대표 작품 TYPICAL ARTWORKS



존 에버렛 밀레이, *버넘 협곡*, 1891, 맨체스터 시립 미술관 ©Manchester City Galleries

### ▶ 제1장. 자연의 진실 - 순수 풍경과 자연

존 에버렛 밀레이(John Everett Millais)는 1848년에 결성된 라파엘전파의 주요 3대 화가 중 한 명으로 활동했던 시기부터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배경으로 한 인물의 모습이나 순수한 자연 그대로의 풍경을 주로 그렸다. 초상화가로서 더 큰 명성을 누리긴 했으나, 풍경화는 그에게 있어서 순수하게 자연을 접하는 일종의 안식처였다고 할 수 있다. 겨울 풍경을 담은 이 작품은 밀레이가 버넘 홀에서 마지막으로 머물던 시기에 그려진 것이다. 그리고 그가 특별히 사랑했던 지방의 풍경을 그린 그의 모든 작품들 중 마지막 작품이기도 하다. 버넘 홀을 무척 사랑했던 밀레이는 그곳을 떠나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마음에 무척 아쉬워했는데, 작품 속에서 뒤돌아서 있는 애절한 인물의 모습은 마치 그곳을 떠나야 하는 그의 안타까운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듯하다.”

## 대표 작품 TYPICAL ARTWORKS



조지 프라이스 보이스, *팽번의 흑양나무 숲*, 1868년경, 개인소장 ©GNC media

### ▶ 제1장. 자연의 진실 - 순수 풍경과 자연

조지 프라이스 보이스(George Price Boyce)의 작품들은 사려 깊은 비평가들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다. 특히 1864년 영국의 유명 미술전문지인 『아트 저널』은 “보이스는 단순한 자연을 바라보는 올바른 눈을 가진 화가이다. 그는 자연에 대한 경건한 마음을 바탕으로 하여, 자연을 변형하거나 조합하지 않으려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그의 미술 세계는 한마디로 ‘꾸밈없고 소박하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평했다. 그리고 2년 후, 『아트 저널』은 그에 대한 또 다른 평론을 다음과 같이 게재했다.

“보이스는 자신의 화폭에 그럴 풍경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는 그럴 만한 대상이 없을 것 같은 곳에서도 빼어난 스케치를 해낼 정도로 그는 현명했다.” 이 작품은 1860년대 후반 보이스가 추구했던 독특한 회화적 시각을 보여주는 대표작으로서, 주의 깊은 표현을 통하여, 풍경의 이질적인 요소들은 나란히 배열되어 서로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 영국근대 회화전

터너에서 인상주의까지

From Turner to Impressionists - The collection of British landscape painting

## 대표 작품 TYPICAL ARTWORKS



조제프 말로드 윌리엄 터너, *바람 부는 날*, 1808-1809, 맨체스터 대학 테블리 하우스

©University of Manchester (The Tabley House Collection)

### ▶ 제2장. 하늘과 물의 풍경

특정한 지역의 모습을 표현한 풍경화는 제작 배경에 따라 몇 가지로 그 성격을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중 한 가지는 부유층들이 저택이나 대정원 등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재산'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하여 의뢰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이 바로 그러한 풍경화의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조제프 말로드 윌리엄 터너(Joseph Mallord William Turner)는 그의 후원자인 존 레스터 경을 위하여 그의 저택인 '테블리 하우스'의 모습을 담은 것이다. 작품 속에서 저택의 모습은 원경에 작게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레스터 경이 소유하고 있는 저택과 대정원 등의 광활한 사유지를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1809년에 왕립 아카데미에 이 작품이 전시되었을 당시 많은 비평가들로부터 호평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덕분에 터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저택이나 사유지 풍경을 담은 그림을 주문 받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화가로서 '터너'라는 이름을 크게 알리고 명성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경제적인 성공까지 이룰 수 있었다. 이 작품은 그가 그린 초기의 대작들 중 한 점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 영국근대 회화전

터너에서 인상주의까지

From Turner to Impressionists - The collection of British landscape painting

## 대표 작품 TYPICAL ARTWORKS



에드워드 스톡, *말들의 물먹이*, 1890년대 중반, 터치스톤스 로치데일 미술관

©Touchstones Rochdale Art Gallery, UK

### ▶ 제3장. 목가적인 풍경

1880년대에 파리에 머물며 카롤루스 뒤랑의 아틀리에 및 에콜 데 보자르에서 그림을 배웠던 에드워드 스톡(Edward Stott)은 장 프랑수아 밀레와 쥘 바스티앙 르파주와 친분을 맺은 이후로,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작품 속에 자유로운 감정을 담는 방법을 익힐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밀레와 르파주는 전원 생활 속에서 성스러운 감정을 발견했던 화가들이었는데, 스톡은 이들로부터 많은 영감을 얻었으며, 풍경화에 대한 자신만의 결정적 심상을 갖게 되었다. 1890년대에 이르러, 그는 우화적인 느낌이 엿보이는 목가적인 주제를 표현하는 데 전념했으며, 엠벌리로 거처를 옮긴 이후 이 주제를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승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를 통해 그는 동시대 미술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화가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비평가 J. 스탠리 리틀은 스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스톡은 엠벌리의 수많은 아름다운 풍경들을 다양한 측면으로 연구했으며, 이를 통해 엠벌리의 정신적 본질까지 작품 속에 담아냈다. 그곳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엠벌리를 가장 아름답고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다.”

# 영국근대 회화전

터너에서 인상주의까지

From Turner to Impressionists - The collection of British landscape painting

## 대표 작품 TYPICAL ARTWORKS



토마스 프레데릭 메이슨 쉬어드, 추수 중의 휴식, 1898, 시플리 미술관

©Shipley Art Gallery, Prince Consort Road

### ▶ 제3장. 목가적인 풍경

토마스 프레데릭 메이슨 쉬어드(Thomas Frederick Mason Sheard)는 파리에 있는 자크 쿠르투아와 쉘 조제프 르페브르의 아틀리에에서 그림을 배웠다. 그리고 런던으로 돌아온 후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왕립 아카데미에서 작품을 전시하기도 했으며, 대학 및 미술학교에서 교수로 활동하며 학생들을 가르쳤다. 쉬어드는 시골 풍경이나 전원에서 사람들이 일하는 풍경 등을 즐겨 그렸는데, 이 작품은 영국 버크셔의 이스트 헨드레드에 거주했던 그가 런던의 서쪽 혹은 잉글랜드 남부 지방의 모습을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때때로 그는 중동이나 북아프리카를 배경으로 한 풍경 작품들을 전시하기도 했다.

# 영국근대 회화전

터너에서 인상주의까지

From Turner to Impressionists - The collection of British landscape painting

## 대표 작품 TYPICAL ARTWORKS



에드워드 스톡, *나룻배*, 1887년경, 올덤 미술관 ©Gallery Oldham

### ▶ 제4장. 삶이 어린 풍경

에드워드 스톡(Edward Stott)은 1880년대에 프랑스에서 지내는 동안, 프랑스 화가인 쥘 바스티앙 르파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는 르파주를 만나기 위하여 그레 쉬르 루앙에 있는 그의 아틀리에를 찾아가기도 했으며, 개인적으로 르파주의 작품을 연구하고 모사하기도 했다. 이 시기에 스톡은 있는 그대로의 시골 풍경을 가슴이 저미는 듯한 시적이면서도 감성적인 분위기로 작품 속에 담았다. 인물을 작품의 주제로 삼을 때에도, 인물에 대한 미화 혹은 꾸밈을 배제한 채 보이는 그대로를 표현했으며, 그들이 느끼는 일상의 고단함을 특별히 강조하여 묘사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후, 잉글랜드로 돌아와 1889년에 서식스의 엠벌리에 정착하면서 서부터는 종교적이거나 상징적인 주제를 담은 작품을 그리는 데 전념하기도 했다.

영국 유명 미술잡지인 『스튜디오』는 이 작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녹색 톤으로 칠해진 분위기 속에서, 인물들이 입고 있는 옅은 색의 옷과 물 위에 떠 있는 수련, 그리고 붉은색 농가의 모습은 대조를 이루면서도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호평했다.

이 작품은 스톡이 르파주로부터 영향을 받아 야외에서 직접 스케치를 하고 채색까지 완성한 마지막 작품이다. 이후에 그는 야외에서는 스케치만 하고 아틀리에로 돌아와 작품을 마무리했는데, 이번 전시에 소개된 그의 또 다른 작품인 「물먹이 터」가 바로 그 예이다. 두 작품을 비교해보면 스톡의 화풍의 변화를 뚜렷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 영국근대 회화전

터너에서 인상주의까지

From Turner to Impressionists - The collection of British landscape painting

## 대표 작품 TYPICAL ARTWORKS



엘리자베스 아델라 포브스, *장, 잔 그리고 자넷*, 1891년경, 맨체스터 시립 미술관 ©Manchester City Galleries

### ▶ 제4장. 삶이 어린 풍경

이 아름다운 그림은 1891년에 엘리자베스 아델라 포브스(Elizabeth Adela Forbes)가 남편이자 역시 화가였던 스탠호프 포브스와 프랑스 브르타뉴 지방의 캉갈을 여행하던 당시에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포브스 특유의 자유로움이 묻어나는 이 작품은 영국 인상주의의 진수를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확실하게 드러나는 원근법적 구도 속에서 인물들은 서로 다른 비율로 그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남편인 스탠호프 포브스가 그랬듯이, 그녀 역시 쥘 바스티앙 르파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 넓은 붓 터치를 사용하여 풍경을 표현했다. 작품의 모든 요소들은 각기 다른 크기와 형태의 터치로 그 무늬와 질감이 표현되어 있다. 포브스는 야외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는 장면을 직접 관찰하며 이 작품을 그렸다. 아틀리에에서 그린 작품이 아닌 까닭에, 과도하게 복잡하지도 않고 의도적인 수정도 더해지지 않았으며, 작품에 전반적으로 생생하면서도 사실적인 기운이 묻어난다.

# 영국근대 회화전

터너에서 인상주의까지

From Turner to Impressionists - The collection of British landscape painting

## 대표 작품 TYPICAL ARTWORKS



조지 클라우슨, *봄날의 아침, 하버스톡 힐*, 1881, 베리 미술관 ©Bury Art Gallery

### ▶ 제4장. 삶이 어린 풍경

19세기 동안 많은 철학자와 사회학자들은 한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얼마나 상호 의존적이며 동시에 일관성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개개의 사회 계층들이 경제적 여건이나 교육 환경 등에 의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하여 고민했다. 이 시기의 구상회화 작품들 속에서도 역시 이렇듯 미묘하지만 완곡한, 정치적이면서 사회적인 요소들이 간간히 발견되기도 한다. 특히 조지 클라우슨(George Clausen)의 이 작품은 단순한 도시의 거리 풍경을 넘어 하나의 사회적인 파노라마를 제시하고 있는데, 한 공간에 있지만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는 각각 인물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계급의 실상을 느낄 수 있게 된다.

# 영국근대 회화전

터너에서 인상주의까지

From Turner to Impressionists - The collection of British landscape painting

## 대표 작품 TYPICAL ARTWORKS



헨리 허버트 라 생, 자두 줍는 사람들, 맨체스터 시립 미술관 ©Manchester City Galleries

### ▶ 제4장. 삶이 어린 풍경

헨리 허버트 라 생(Henry Herbert La Thangue)은 영국 인상주의 화가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 중 한 명이다. 왕립 아카데미에서 수학했던 그는 1880년대 초반, 훗날 왕립 아카데미의 회장이 되는 프레데릭 레이튼의 추천을 받아 파리의 장 레옹 제롬의 아틀리에에 다니면서 그림을 그렸다. 이 기간 동안 그는 바르비종파에서부터 쉐 바스티앙 르파주에 이르는 프랑스 외광파의 회화적 전통을 이해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언제나 존경하는 프랑스 화가들의 작품을 본보기로 하여 경쾌한 느낌의 그림을 그렸으며, 특히 빛나는 대기를 표현하는 데 주의를 기울였다.

라 생이 즐겨 그린 주제는 주로 시골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는데, 노동자 계층이 삶에서 겪는 고난과 궁핍함에 대한 연민을 작품 속에 표현하고자 했다. 이 작품에서는 그의 이러한 정치적이고도 사회적인 관점이 다소 완화되어 있는 느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시의 발달된 문명이 안고 있는 폐해로부터 벗어나 전원 생활의 진실한 모습을 작품 속에 담으려고 노력했다.

# 영국근대 회화전

터너에서 인상주의까지

From Turner to Impressionists - The collection of British landscape painting

## 대표 작품 TYPICAL ARTWORKS



조지 프라이스 보이스, *팽번의 화이트 스완*, 1863-1864, 개인소장 ©GNC media

### ▶ 제5장. 새로운 풍경의 등장

조지 프라이스 보이스(George Price Boyce)는 평생을 런던에서 거주했지만, 여름과 가을에는 영국의 시골이나 프랑스에서 보냈다. 1859년 이후로 그는 리딩과 옥스포드 사이의 템스 강 연안에 위치한 마을의 작은 오두막집이나 여인숙에서 머물기도 했는데, 이곳에서 그는 노 젓는 보트를 빌려 강을 따라 그곳을 여행했으며, 자신의 그림 속에 담을 만한 아름다운 풍경을 찾아 다녔다. 특히 팽번은 그림처럼 아름다운 특별한 장소였는데, 완만한 구릉지가 있는 풍경 사이로 강이 흐르고, 언덕 주변에는 너도밤나무 숲이 우거져 있었다. 그는 팽번 특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물들에 특히 매료되었으며, 그의 많은 드로잉 속에는 이곳의 농가들이나 헛간, 방앗간 등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 작품에는 팽번의 마을 여인숙이 그려져 있는데, 오늘날에도 이 여인숙은 그림에서처럼 존재하고 있다.

1870년대에 이르러 그는 윌리엄 모리스, 존 러스킨, 필립 모리스 등과 함께 '안티스크레이프'라고 불리는 고대건축물 보호 협회의 창시자로 활동하였으며, 이 시기에 그가 그린 드로잉들은 협회가 보호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던 건물들의 자료로 활용되기도 했다.

## 대표작품 TYPICAL ARTWORKS



폴 고갱, *디에프 항구의 풍경*, 1885, 맨체스터 시립 미술관 ©Manchester City Galleries

### ▶ 제6장. 프랑스 인상주의

1885년 10월, 노르망디 연안의 디에프에 머물렀던 폴 고갱(Paul Gauguin)은 1886년의 <인상주의 전시회>에 출품하기 위하여 이 작품을 그렸다. 디에프 항구는 변화무쌍한 날씨의 변화 및 대기의 다양한 모습으로 인하여 많은 화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장소였으며, 고갱이 머물던 당시에는 르누아르, 모네 및 드가와 같은 프랑스 인상주의 화가들이나 제임스 휘슬러와 같은 영국의 대표적 화가들이 모여 서로의 화풍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나누고 있었다. 고갱 역시 이러한 최고의 화가들 사이에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 작품에서 나타나고 있는 짧은 붓 터치를 이용한 풍경의 표현법은 클로드 모네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며, 전반적인 고갱의 화풍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표현 방법이기때문에 매우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잠시 동안 짧은 붓 터치를 이용한 풍경 표현에 몰두했던 그는 이후 타히티 섬으로 거처를 옮기고 그곳의 이국적인 자연이나 원주민의 생활상을 그리며 독자적인 표현 기법을 개척했다.

# 영국근대 회화전

터너에서 인상주의까지

From Turner to Impressionists - The collection of British landscape painting

## 대표 작품 TYPICAL ARTWORKS



앙리 외젠 오귀스탱 르 시다네, 창 밖으로 보이는 마당, 1904년경, 맨체스터 시립 미술관

©Manchester City Galleries

### ▶ 제6장. 프랑스 인상주의

이 작품 속, 창문 밖으로 보이는 마당의 풍경은 프랑스 북부 보베 지방의 북서쪽에 있는 제레브루아에 위치한 앙리 외젠 오귀스탱 르 시다네 Henri-Eugène-Augustin Le Sidaner의 집 안에서 바라본 바깥 풍경이다. 르 시다네는 1904년에 이 집으로 이사했는데, 이 때부터 이 곳 마을과 그의 집은 그가 그린 그림의 주된 소재가 되었으며, 강렬한 실존적 명상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아프리카 동쪽 섬나라인 모리셔스에서 태어난 르 시다네는 1880년에 프랑스 파리로 이주했다. 에콜 데 보자르에서 학술적이면서 아카데미한 미술 수업을 받았지만, 머지 않아 그곳의 수업 내용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게 되었고, 특히 스승이었던 알렉상드르 카바넬로부터 배운 회화 원리를 전면적으로 부정했다. 한동안 노르망디 지방의 에타플에 거주했던 그는 그곳에서 신인상주의적인 화풍으로 시골의 풍경을 그리기도 했으나, 1890년대에 이르러 조용하고 텅 빈 느낌의 거리와 정원, 실내의 풍경을 화폭에 담으면서 불안감이나 상실감을 환기시키는 자신만의 화풍을 고안했다.

# 영국근대 회화전

터너에서 인상주의까지

From Turner to Impressionists - The collection of British landscape painting

## 전시 관람 안내 VISIT INFORMATION

1. 전시기간 : 2010년 6월 25일(금) ~ 2010년 9월 26일(일)  
\*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은 휴관입니다.(6/28, 7/26, 8/30)
2. 전시장소 :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3층
3. 관람시간 : 오전 11시 ~ 저녁 8시  
\* 입장은 관람 종료 1시간 전까지 가능합니다.
4. 입장료

구분	입장료(원)		적용범위	
	개인	단체(20 인이상)		
보통권	일반	11,000 원	9,000 원	만 19 세~64 세
	청소년	8,000 원	6,000 원	만 13 세~18 세
	어린이	6,000 원	4,000 원	만 7 세~12 세
특별권	5,000 원		만 65 세 이상, 국가유공자, 장애우(동반자 1 인 포함), 미취학아동	
무료입장	-		48 개월 미만의 유아	

5. 홈페이지 : <http://www.british2010.kr>
6. 인터넷 예매 : 인터파크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모바일 예매 : 휴대폰에서 6789 누르고 NATE, SHOW, OZ
7. 전시문의 : 02-325-1077 / 단체문의 : 02-325-1078

### \*\* 교육 프로그램

1. 도슨트교육(무료) : 전문 도슨트들과 함께 전시장에서 작품을 감상하며 무료로 전시 및 작품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11:30/14:00/16:00/18:00 : 일주일 내내 진행됩니다.)
2. 오디오가이드(유료) : 3층 전시장에서 오디오가이드기계를 대여하시면, 약 40여 점의 주요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대여료 3000원)  
\* 오디오가이드는 관람 종료 2시간 전까지 대여 가능합니다.
3. 찾아가는 미술관 : 단체 관람 예약 시, 사전에 전시 도슨트가 원하는 장소로 방문하여 전시 및 작품에 대하여 무료로 설명을 해 드립니다.  
\* 신청은 꼭 02-325-107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교육 영상물 : 단체 관람 예약 시, 요청하시면 교육영상자료를 보내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이미지 게재 시에는 작품 하단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카피라잇을 반드시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를 게재하신 후, 게재된 매체 2부를 지앤씨미디어로 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52-11 지앤씨미디어빌딩 5층 김현지팀장)